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8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이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 법공양 페이지

# 부딪침 없고 어려움 없다면 공부 못해

### 15면에서 계속

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빛보다 더 빠르거든요. 어떻게 마음이 빛보다 더 빠르겠느냐 이러겠지만 빛보다 더 빠른 게 사실이에요. 빛은 착오가 있지만 대신 이 마음은 착오가 없어요. 물 속이고 불 속이고 간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이끌어 가는 정신계의 나 자신을 모르는 척 하고 만날 바깥에다가 빌고 기도를 한다면 언제 자기를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몸중이를 오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을 벗어나야 바깥에서 통을 굴릴 수 있는 거지. 이 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네 통을 굴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기 마음이 벌써 자기를 리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리드하고 다스릴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겁니다. 요만한 것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죠. 꽃이 핀 것도, 돌이나 나무나 또 물 흐르는 걸 본

- 부처님 형상도
- 내 형상이요
- 부처님 마음도
- 내 마음이며
- 부처님 생명도
- 내 생명입니다

다 하더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이런 돌집 하나도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승 아닌 게 하나나 있었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스승이요. 그러나 이게 평등공법이 아니고 뉘웠습니까. 사람이 정말 실전을 해나가고 자비하고 사랑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만민이 다 '당신은 정말 진짜 사람이야' 할 겁니다.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살다가 갈 때 깨진 바가지가 구르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만들어 놓고 간다면 그게 어디 희망입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이 자기 한 대로 만들어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수통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습니다. 부처님만 계산이 아닙니까. 모두에게 있지만 자기가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어요. 그게 입력이 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된 대로 또 현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지금 현실에 나오는데도 재입력을 한다면 바로 앞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입력이 들어간다 이 소리가요. 쉽게 말하자면 소멸된 다 이 소리가요.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물질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옛날 방식으로는 키우기 어렵죠. 그러니 현대의 방편으로써 가르쳐야 되는 데 이러면 어때요? 식탁 위에라도 '과거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의욕이 없거나 아플 때도 '너만이 의욕있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또 집안이 편치 않을 때도 '너만이 집안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에다 관하게끔 가르치세요. 거기가 원동력이나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안보이시죠? 불이 꺼지고 켜지는 건 보이는데 전력은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전력이 없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부모자식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이다 하면 본래 가설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 상대방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와서 잘못을 누워치고 화합해서 잘 살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우리 사는 것이요.

과거 나 즉 불성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 움직여가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줍니다. 바위가 굴러갈 때 이탈되지 않게끔 그 힘을 배출해 주죠. 그러니 그걸 믿고 모든 것을 이탈되지 않게 한생각을 잘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은 허공에 그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생각이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자기 근본과 이 몸중이 속에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의 의식과 더불어 같이 공용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용무라고 그러죠. 용무의 행이라고 그러지만 공용이라고도 합니다. 공용의 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심이 되고요. 공심이 되면 공용으로 서의 온갖 마음 의식을 다 내서 바깥에서까지 즉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다 처리를 하고 다시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 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의학이기도 합니다. 일체 심성문화도 되고 어떤 게 아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머리끄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요런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내 스승이거늘 어찌 머리끄는 종이라고 업신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꺾는 것은 일체 무명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깎아버리니까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오면 또 깎아버리고 나오면 또 깎아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고 그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는데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도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살을 찢는다고 그랬습니까. 몇 겹을 찢어요. 그런 걸 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미물의 짐승이나 또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역시 물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우리 인간들이든, 다들 보면 그만한 고통이 따르고 그만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아픔이 따르죠. 그럴 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림·최주현

불교는 어떠한 한 곳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진리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대로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대로, 준비하면 그대로 다 알게 돼요. 전체 모습을 봐야지 한쪽면만 보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수녀 한 분이 그러더군요.

'스님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부딪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한 해에 추수를 해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들었기 때문에 남도 주고 나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마음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딪치면서 바깥으로 차면서 문도 떨어져 나가고 온통 어떻게 보든 보지 않고 남도 주고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당해 봐야 그 승성을 놓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아, 이런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생각했는지요.

그러니까 싸우는 바람에 단번에 그 숨이 막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하하하... (대중웃음)

### 안거수행을 하는 이유

불가에서는 사람 물 받기 어렵고 불법만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될 알고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묵동정 행주좌와가 모두 선인데 무슨 특별한 선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많은 스님들께서 요즘 안거 행을 하시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안거든 하안거든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마음공부하는데 선에는

는데 그걸 못보는 거죠. 물론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이 패배한 놈!' 하고 뒤돌아서서 후적후적 갈 거예요. 절을 한다 안한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자기를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요.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단 얘기고요. 비이삭도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지고 좀 그렇게 될수록 고개는 더 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 더 지혜가 풍부해져서 전체 바다가 돼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 풀 한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손수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대대로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할 때 시장에 가서 그릇 좀 보세요. 종지예다가 밥 담습니까. 간장밖에 못 담죠. 찹시는 찹시대로 담을 물건이 따로 있죠. 그러나

### 주인공 불성을 믿고

"너와 내가 둘 아닌데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말한다면 국난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큰 바다가 되라는 겁니다. 큰 바다에 정수로서 요만한 거 하나 버리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삼켜서 토해낼 수 있는 그 작용을 용무로서 해봐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너는 이름해서 여래인 것이다 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금방 아빠가 돼죠. 그런데 또 '여보' 하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남편이 되죠. 자동적으로 '애, 아무개야' 하고 안방에서 부를 땐 '애, 어머니' 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할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이 났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났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이 났을 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자기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 사람이 했다 하고 지적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름없는 것이 부처다 이 거죠. 아주 없는 것이 부처인 것이죠.

나는 여러분한테 직접 실형 안해보고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말할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을 때 실천에 옮겨지면서 모두 배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 모두 있거든요. 나는 그저 길만 인도해줬지, 그 길까지 가서는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라. 대신 죽어주고 아파주고 깨우쳐주고 잡자주고 밥먹여주고 통뉘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만할까요. 그러면 오늘 국난도 국난이 아니고 고(苦)도 고가 아니다 라는 게 다 해명이 됐습니까. 그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바 국난도 없어질 거고 재난도 없어질 거고 어떤 생활 속에서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내 종교 내 종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도 싸울 생각하지 마시구요. 비난할 생각 말고요. 어떤 스님네들이나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도 이것은 사람이 그런 잘못이 없다면 커질 수가 없고 지혜와 실수가 없으니까, 항상 물이 한군데서 모여 있으면 썩으니까 저것이 바깥으로 뿜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 좋을 것입니다.

# 마음자리가 원동력이니 거기에 관해야 고개 숙일줄 모르며 자기승화 못시켜요

하는 세상을 볼 때 우리 인간도 지금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살고 있죠. 그러나 인간은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아도 역시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를 리드해나가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데 다가오는 것은 칼을 들고 와도 그걸 대치를 못할 거니까요. 풍뎉이를 들고 와도 대치를 못해요. 병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해요. 그러나 꼭 자기를 믿고 중심을 잡으면 들에는 오방십장이요 또는 호법신장이요 뭐 모두가 그 한생각에 더 다 진화돼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 마음 속에 보살들이 다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물에 가면 주해신이 돼주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돼주고, 또 좋은 데로 못가면 지장이 돼주고, 영이 짧을 때는 칠성부처가 돼주고, 아플 때는 약사가 돼주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받을 때는 관세음이가 돼주고, 자기 한마음을 속에서 천차만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갈래갈래로 말입니다.

이것은 체가 없는 자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는 고난을 극복하기 어렵죠. 보이지 않는 걸 무시해선 안되죠. 혼자서만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더불어 같이 극복하려면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한데 합쳐야 되겠

기에 주인공 불성을 믿고 '주인공, 너만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어' 하고 말한다면 모두 살 길이 열리죠. 이것도 어렵다면 마음을 하나로 등글러서 딱 묶어서 거기가 내내쳐서 태우세요. 거기가 놓고 태우면서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세요.

다쳐오는 대로 말이에요. 그러면 국난 극복도 될 수 있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데 마음과 마음으로 다 퍼져요. 이걸 자중적이에요. 퍼져서 퍼져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나쁜 일들을 많이 했으면 고난이 더 되고, 덜 했으면 덜 오고 이렇게 연방연방 아주 질서정연해요. 내가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마음을 이렇게 쓰세요. 나쁜 꿈을 꿔더라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물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요. 내 마음이 영이려면 수만개의 영을 갖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영이지요. 개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 조계종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본원 범행체회의 김광현입니다. 조계종단 사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단이 왜 저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또 오랜 수행정진으로 원력이 크신 스님이 많이 계시는데 저런 건 사전에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결국 발전하기 위해서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부딪침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공부라든 사람은 알겠지 만 많은 사람 중에는 이해를 못하고 불교는 저런 것이다. 스님네가 저러니 불교는 믿지 말자 이런 마음이 많이 났을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재료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한생각 잘 내면 정말이지 그 사람네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만약 한생각을 잘 내지 못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자기한테 미치는 거니까요.

여름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국토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질텐데, 그래서 포교일선에서 우리 불자들이 많이 만들어서 불국토를 만들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고 안거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거든요. 해제를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고 또 안거했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안거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고 해제했을 때는 우리가 죽느냐?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누워서 잘 때는 좌선, 서서 다닐 때는 입선, 또 일을 할 때는 행선, 앉아서 있을 때는 좌선, 이것이 전부 네 가지가 송두리째 그냥 요만큼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참선이 된다 이 소리가요.

이 몸중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나온 게 이 몸인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도 불구하고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걸레같이 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우뚝뚝 하나에다 과일 세가지, 향, 초, 흰 꽃, 물 한그릇 이렇게만 놓고 합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것도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해주면 안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하는냐. 그런 자손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교훈도 되고 이런 참회합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삼심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

### 협찬 주인공